

## 제목 :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 ◆ 이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3년 5월 1일 전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의 연구분석 결과임
  -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66.6%가 나쁘다고 평가
  -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0.4%
- ◆ 14년전 실시된 1989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한국노동연구원·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연구)와의 비교
  - 노사관계가 나쁘다는 의견이 59.9%에서 66.6%로 7%p정도 증가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행동이 금지 혹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약 76%에서 88.3%로 12%p이상 증가
  -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35.2%에서 54.6%로 20%p이상 증가

## □ 조사 목적

- 안정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이와 관련된 국민의식의 변화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의 조사는 주로 노측과 사측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왔음.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를 통해 노사관계를 둘러싼 각종 문제와 쟁점을 노사의 이해를 뛰어넘는 공공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올바른 법·제도 개선의 방향을 타진해 보고자 함.

## □ 조사 시기

- 2003년 5월 1일

## □ 조사 대상 및 대상의 일반적 특성(부록 참조)

- 전국 거주 20세 이상 성인남녀(65세 이상 제외)  
남성 51.2%, 여성 48.8%
- 직업은 농림어업 6%, 자영업 20%, 블루칼라 11.6%, 화이트칼라 17.1%, 주부 29.4%, 학생 6.8%, 무직/기타 8.7%로 구성
- 연령은 20대 24.3%, 30대 28.4%, 40대 25.9%, 50대 이상 21.4%로 구성
- 학력은 중졸이하가 15.9%, 고졸이 41.4%, 대졸 이상이 42.1%로 구성
- 소득은 150만원 이하가 31.4%, 151만원-250만원이 28.8%, 251만원 이상이 31.6%로 분포.

## □ 주요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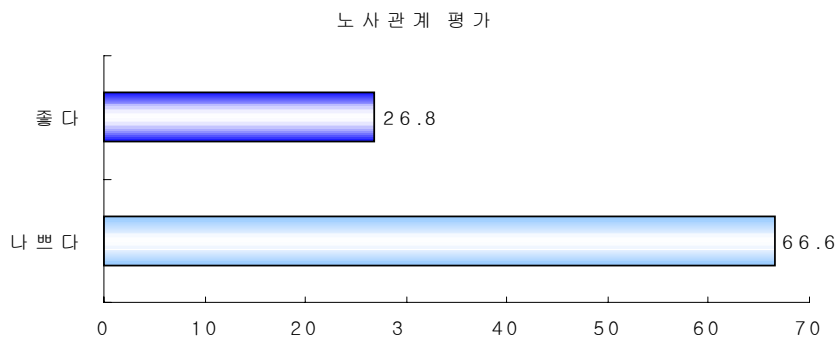
- 노사관계 일반에 대한 태도,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노사관계 현안이슈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고,
- 비교가능한 문항이 있는 경우 1989년 3월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수행한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연구』의 내용과 비교, 의식의 변화를 추적.

## I. 노사관계 일반에 대한 태도

### 1.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해 66.6%의 응답자가 나쁜 편 혹은 매우 나쁘다고 응답.
- 이는 1989년 약 59.9%로 조사된 나쁘다는 평가보다 6%이상 증가한 것.

####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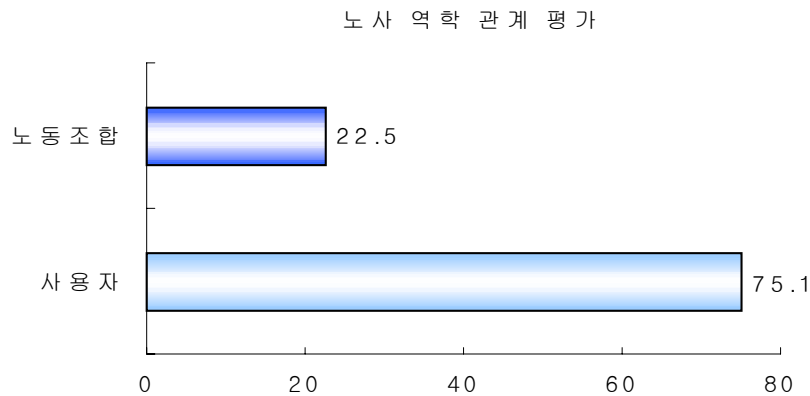
\*그림의 수치가 총 100%가 안 되는 이유는 모름/무응답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 이후 그림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남성(63.1%)보다는 여성(70.3%)이, 고연령층(50대이상 61.7%)보다는 저연령층(20대 70%)이, 저학력자(중졸이하 61.6%)보다는 고학력자(대재 이상 70.3%)가, 저소득층(150만원이하 61.5%)보다는 고소득층(251만원 이상 71.5%)이 더 노사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종사자(55%)나 자영업자(58%)보다는 블루칼라(75.9%)나 화이트칼라(65.5%)가 노사관계를 더 나쁘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기능/숙련공(82.6%) 및 전문/자유직(81.3%)이 다른 블루(판매/서비스, 일반 작업직) 혹은 화이트칼라직종(사무기술, 경영/관리직)보다 현저히 더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 그러나 학생(83.8%)의 평가가 가장 나빴음.
- (회귀분석 결과) 블루칼라는 농림/어업이나 자영업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노사관계를 나쁘게 평가, 그 외 소득 및 거주규모(도시 대 시골)의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왔음.

## 2. 노사 역학관계 평가

- 응답자들은 노동조합보다는 사용자의 힘이 더 강하다고 노사간 역학관계를 평가

### 노동조합과 사용자 중 어느 편의 힘이 더 강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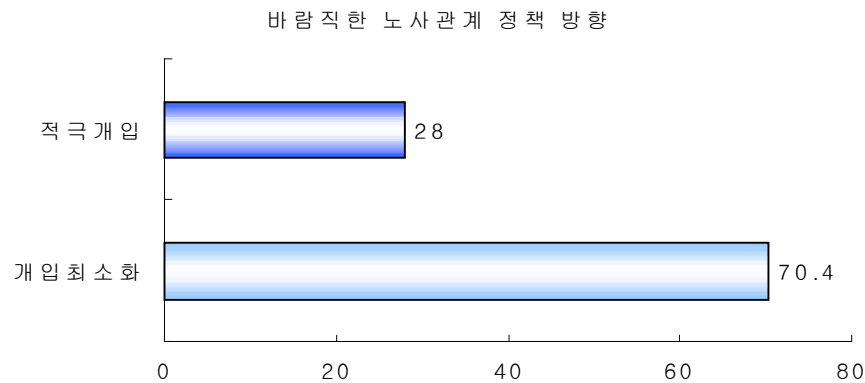


- 저연령층(20대 81.9%)이 고연령층(50대 이상 60.7%)보다 사용자의 힘이 더 세다고 평가. 성별, 소득별 격차는 크지 않았음.
- 화이트칼라(84.8%)가 블루칼라(81%)보다 사용자의 힘이 세다는 응답비율이 약간 더 높았음. 그러나 블루칼라 내 일반직(91.3%)이 이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 3. 노사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정부 정책 방향

-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피해가 우려되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응답 28%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음.

## 정 부 의 바 람 직 한 노 사 정 책 방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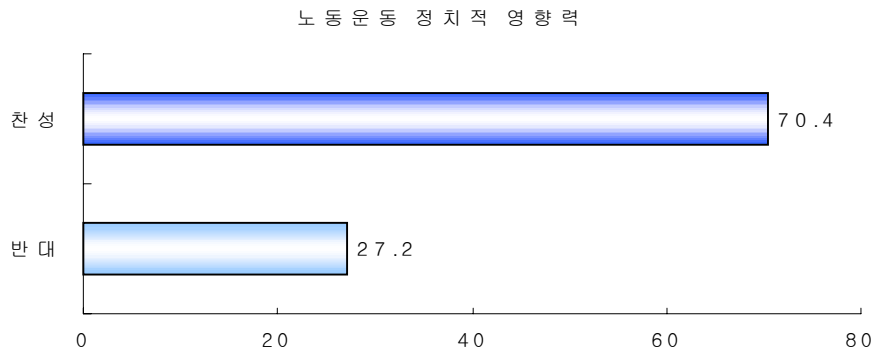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30대(79.2%)**가 20대(70.4%)나 40대(69.1%), 그리고 가장 낮은 50대 이상(60.3%)보다 더 많이 정부의 개입최소화를 희망.  
 학력별로는 **고학력자(대재 이상 72.4%)**가 저학력자(중졸 이하 62.3%)보다 역시 더 많이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득별로는 중간집단인 151-250만원대(74%)가 가장 더 많이 개입최소화를 주장.
- 직업별로는 블루칼라(83.6%)가 화이트칼라(71.9%), 자영업(68%), 농림어업(53.3%)보다 가장 높은 개입최소화 응답률을 기록.

## II.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 4.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

-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다”라는 의견에 대해 19.7%가 매우 찬성, 50.7%가 대체로 찬성한 반면, 23.4%가 대체로 반대, 3.7%가 매우 반대.

##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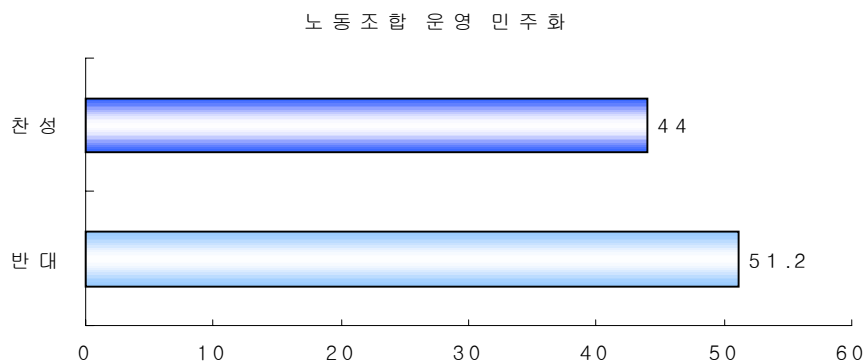


- **고학력자**(대제이상 72%)가 저학력자(중졸 이하 65.4%)보다 노동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의견에 더 많이 찬성.
- 임금근로자가 아닌 주부(75.9%)나 학생(75%), 자영업자(70.5%)가 블루칼라(64.7%)와 화이트칼라(69%), 그리고 농림어업(65%) 종사자보다 더 노동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

## 5.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여부

- “노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5.5%가 매우 찬성, 38.5%가 대체로 찬성한 반면, 42.9%가 대체로 반대, 8.3%가 매우 반대

## “노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여성(40.2%)보다는 **남성**(47.7%)이, 저연령층(20대 42%)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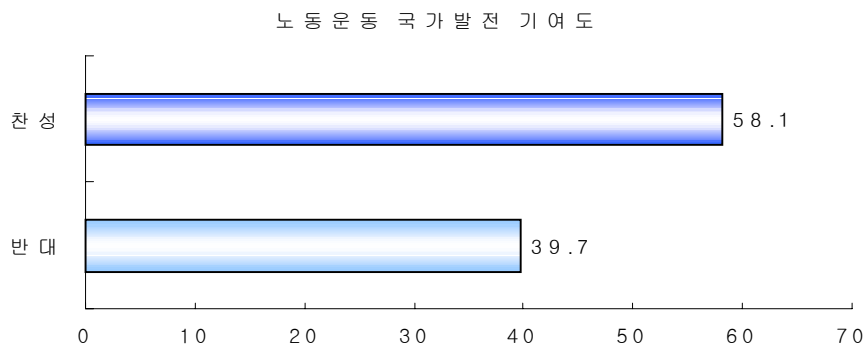
고연령층(50대 이상 51.9%)이, 고학력자(대재이상 35.2%)보다는 저학력자(중졸이하 57.2%)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상태를 묻는 의견에 더 긍정적으로 응답. 성별과 학력은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

-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2.4%) 직종 내 기능/숙련공(39.1%)과 일반작업직(39.1%)의 찬성 비율이 주부(40.1%), 학생(42.6%), 자영업(41.5%)과 더불어 낮은 편이었으며, 농림어업(55%) 및 무직/기타(58.6%)의 찬성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음.

## 6. 노동운동의 국가발전 기여

- “노동운동 자체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 10.5%가 매우 찬성, 47.6%가 대체로 찬성한 반면, 31.4%가 대체로 반대, 8.3%가 매우 반대.

“노 동 운 동 자 체 가 국 가 발 전 에 도 움 이 된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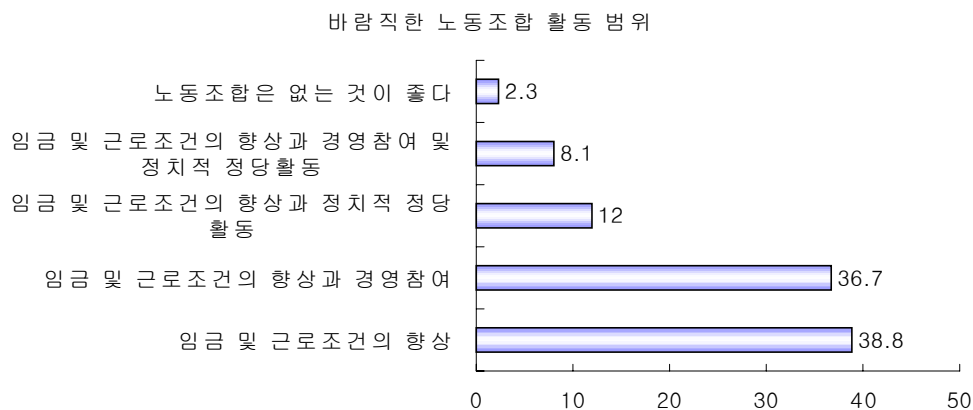


- 고연령층(50대 이상 49.1%)보다는 저연령층(65%)이, 저학력층(중졸 이하 51.6%)보다는 고학력층(대재 이상 62.7%)이, 저소득자(150만원 이하 52.5%)보다는 고소득자(251만원 이상)가 노동운동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
- 직업별로는 학생(75%)과 화이트칼라(63.7%)가 블루칼라(50%; 판매/서비스직은 46.8%로 블루칼라 내에서 가장 낮은 찬성률), 자영업(57%), 농림어업(51.7%), 그리고 주부(55.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음.

## 7.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 바람직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에 대한 찬성비율은 아래와 같음:
  -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에만 한정 38.8%
  -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 + 경영참여 36.7%
  -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 + 정치적 정당활동 12%
  -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 + 경영참여 + 정치적 정당활동 8.1%
  - 노동조합은 없는 것이 좋음 2.3%

### 바람직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에 대한 의견



- 20대의 46.5%가 노동조합활동이 임금 및 근로조건향상 뿐 아니라 경영참여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30대(36.6%) 및 40대(34.7%)와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20대는 또한 다른 연령대보다 정치적 정당활동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노동운동을 선호
- 고학력, 고소득자가 더 경영참여를 선호하지만, 정치적 정당활동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는 학력과 소득에 따른 격차가 없었음.

## III. 노사관계 현안이슈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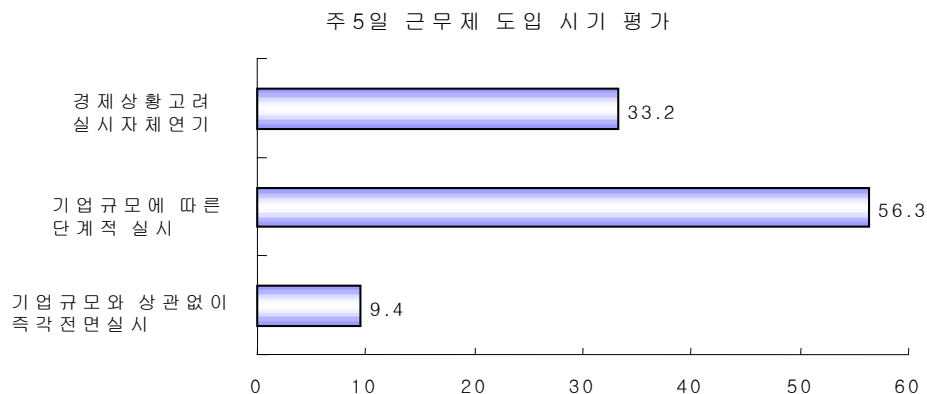
### 8. 주5일제 실시 시기

- 주5일제의 실시시기에 대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즉각 전면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9.4%,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6.3%, 경제상황을 고려해 실시 자체를 미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33.2%로 나왔다.

## 주 5일 제 도입 시기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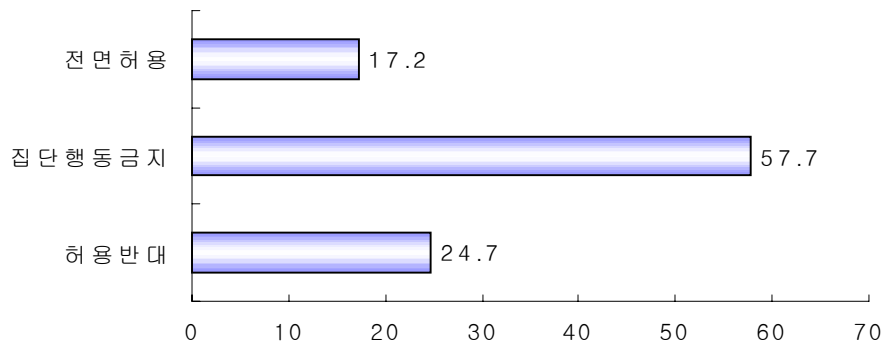
- 저연령층, 고학력자일수록 주5일 근무제의 즉각전면실시를 더 선호.
- 직업별로는 학생(20.6%)을 제외한 경우 화이트칼라(14%) 직종 내 사무기술직(15%), 블루칼라(7.8%) 직종 내 판매/서비스직(10.6%)이 농림어업(8.3%)이나 자영업(5.5%), 주부(6.5%)에 비해 주5일제의 즉각전면실시를 더 선호.

## 9.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24.7%, 노조를 조직할 수도 있지만 파업은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7.7%, 공무원도 파업을 포함한 모든 노조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17.2%.

## 공무원 노조활동에 대한 의견

공무원 노조활동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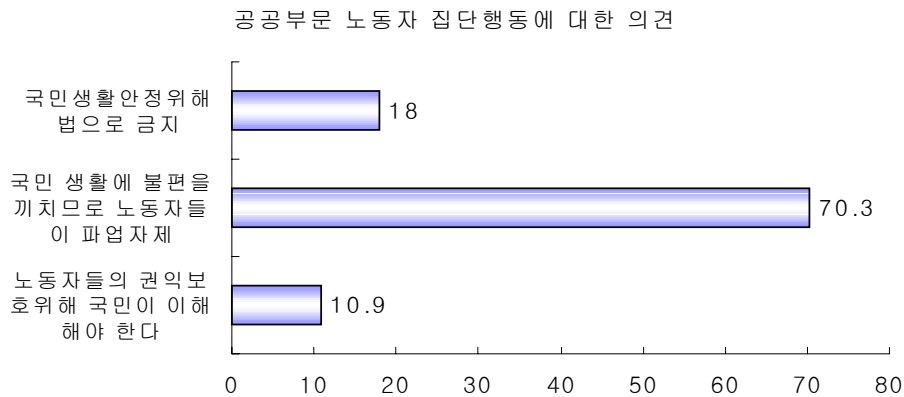


- 20대의 15.6%만이 공무원 노조활동을 반대한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는 43%가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응답해 연령별로 심한 격차를 보였음. 학력별로도 중졸이하(34.6%)의 반대가 대재 이상(21.1%)보다 컸음. 소득별 격차는 미미.
- 직업별로는 농림어업(35%), 자영업(31.5%), 화이트 칼라(23.4%)직종 내 전문/자유직(31.3%), 블루칼라(25%) 직종 내 판매/서비스직(29.8%)의 허용반대의견이 주부(20.4%)와 학생(10.3%)보다 많았음.

## 10. 공공부문 노동자의 집단행동

- 대중교통과 병원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 대해 10.9%만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불편을 국민이 이해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70.3%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므로 이 분야 노동자들은 파업을 가능한 한 자제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8%는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법으로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
- 이 의견은 1989년 노사관계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보고된 참고 견디어야 한다 20.1%, 가능한 한 삼가야 한다 50.3%, 절대로 자제되어야 한다 25.9%보다 현저히 보수화된 것으로 판단됨.

## 공공부문 노동자의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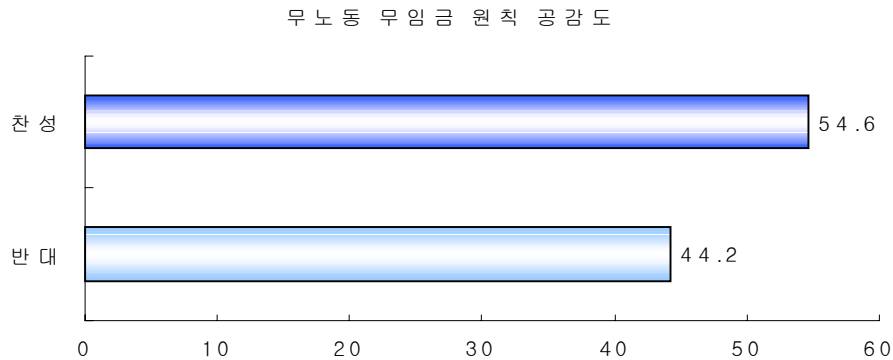


- 역시 저연령층인 20대(15.2%)가 40대(7.7%)나 50대 이상(8.4%)보다 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이해하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그러나 성별, 학력별, 소득별 차이는 거의 없었음.
- 직업별로는 **농림어업**(33.3%) 종사자가 블루칼라(14.7%), 화이트칼라(14.6%), 자영업(18%)에 비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집단행동을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

## 11.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공감도

-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 매우 찬성 21.1%, 대체로 찬성 33.5%, 대체로 반대 32.9%, 매우 반대 11.3%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 의견을 제시.
- 이것은 1989년 조사시 나왔던 과반수 이상의 반대의견(전적으로 찬성 12.5%, 대체로 찬성 22.7%, 대체로 반대 37.6%, 전적으로 반대 26.5%의 의견)과 대비되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그 기간동안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한 찬반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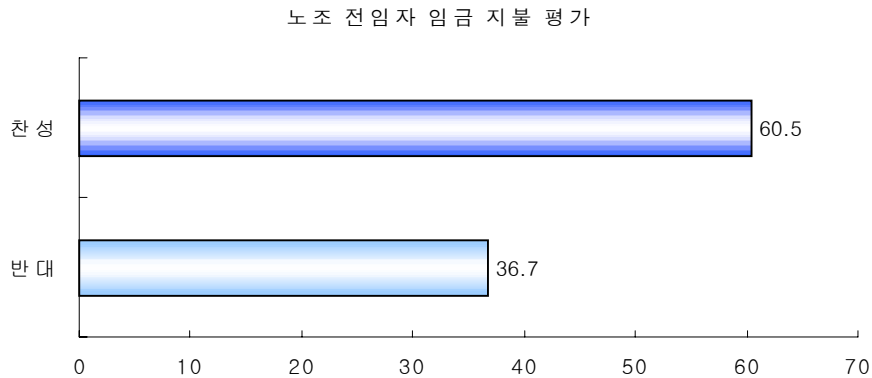


- 남성(38.7%)보다는 여성(50%)이, 고연령층(40대 35%, 50대 이상 39.9%)보다는 저연령층(20대 52.3%, 30대 49.3%)이 현저하게 반대의견을 더 많이 제기하였음.
- 직업별로는 학생(55.9%), 주부(49.3%), 화이트칼라(47.4%), 블루칼라(42.2%), 농림어업(40%), 자영업(38%) 순으로 반대의견을 제시.

## 12.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평가

- 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조의 전임자에게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 12.3%, 대체로 찬성 48.2%, 대체로 반대 26.7%, 매우 반대 10%로 찬성의견이 더 많았음.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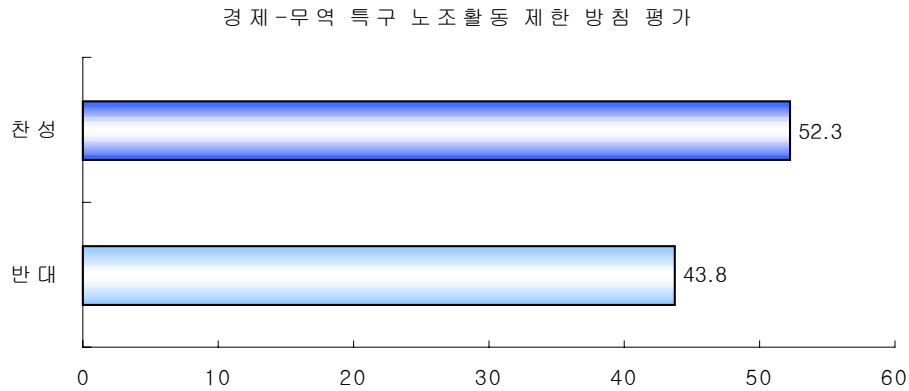


- 저연령층(20대 68.3%, 30대 69.4%)이 고연령층(40대 53.3%, 50대 이상 48.6%)보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음. 그 외 하위집단내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 직업별로는 학생(69.1%), 화이트칼라(63.7%), 주부(63.3%), 블루칼라(60.3%)가 자영업(56%)과 농림어업종사자(45%)보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 더 많이 지지.

### 13. 경제-무역특구 노조활동 제한 방침 평가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이나 무역특구같은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분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14.2%가 매우 찬성, 38.1%가 대체로 찬성, 34.7%가 대체로 반대, 9.1%가 매우 반대.

## 경 제 자 유 구 역 에 대 한 의 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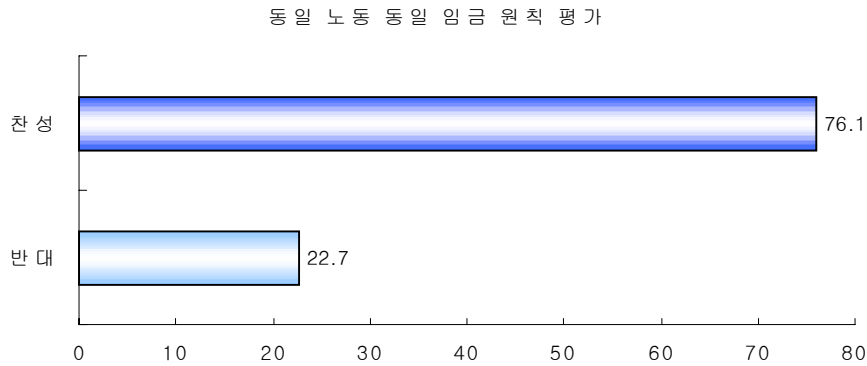


- 고연령층(50대 이상 62.1%)이 저연령층(20대 46.1%)보다, 저학력자(중졸이하 58.5%)가 고학력자(대재 이상 50.4%)보다 경제특구에 대해 더 많이 지지하였음.
- 직업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 14.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평가

-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제공하자는 원칙에 대해 매우 찬성의견이 30.1%, 대체로 찬성이 46%, 대체로 반대가 19.7%, 매우 반대가 3%로 나타남.
- 30대의 찬성률이 82%로 여타 연령대보다 차이 나게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하위집단내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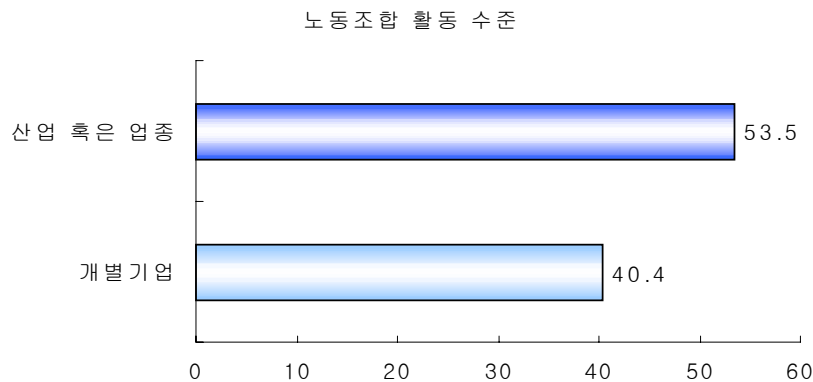
## 동 일 노 동 동 일 임 금 에 대 한 의 견



### 15. 노동조합운동 활동 수준: 기업 대 산별

- 노동조합의 활동이 개별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0.4%로 산별 혹은 업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낫다는 의견(53.5%)보다 소수로 나타났다.

### 바람직한 노동조합운동의 차원: 기업별 혹은 산별



부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범주	빈도 (%)
지역	서울	220 (22.0)
	인천/경기	250 (25.0)
	대전/충청	98 ( 9.8)
	광주/전라	113 (11.3)
	대구/경북	115 (11.5)
	부산/울산/경남	164 (16.4)
	강원/제주	40 ( 4.0)
성	남성	512 (51.2)
	여성	488 (48.8)
연령	20대	243 (24.3)
	30대	284 (28.4)
	40대	259 (25.9)
	50대 이상	214 (21.4)
	평균(표준편차)	40세(11.87)
직업	농림/어업	60 ( 6.0)
	자영업	200 (20.0)
	블루칼라	116 (11.6)
	판매/서비스직	47 ( 4.7)
	기능/숙련공	46 ( 4.6)
	일반작업직	23 ( 2.3)
	화이트칼라	171 (17.1)
	사무기술직	153 (15.3)
	경영/관리직	2 ( 0.2)
	전문/지유직	16 ( 1.6)
	주부	294 (29.4)
	학생	68 ( 6.8)
학력	무직/기타	87 ( 8.7)
	중졸 이하	159 (15.9)
	고졸	414 (41.4)
	대졸 이상	421 (42.1)
소득	150만원 이하	314 (31.4)
	151-250만원	288 (28.8)
	251만원 이상	316 (31.6)
거주 규모	대도시	491 (49.1)
	중소도시	372 (37.2)
	읍면지역	137 (13.7)
주택 형태	자가	697 (69.7)
	전세	239 (23.9)
	월세	31 (3.1)
	기타	24 (2.4)
세대주 여부	세대주	427 (42.7)
	세대원	569 (56.9)